

광주시,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한다

만취자 폭행 등 지난해 4건 소방본부, 발생 즉시 경찰 신고 지역·5천만원 벌금 엄중 처벌

광주시가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마련해 시행한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대부분 음주자에 의한 것으로 광주에서는 최근 3년간 11건이 발생했다. 광주소방본부는 31일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후 20여 일 만에 숨지는 등 구급대원들이 정당한 직무 수행 도중 폭행과 욕설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만5212건 출동해 4만6428명을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보다 2015년(3.1%)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178.7건(2015년 173.1건), 8분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2015년 5건, 2016년 2건, 지난해 4건 등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9%에 해당되는 10건이 음주로 인한 피해였다. 실제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경 북구의 한 도로변에 만취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

자상태를 확인하다 안면부를 폭행당해 상처를 입기도 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구급차 내에 폭행 위험 경고 문구 부착 및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신고접수 시 범죄, 주취폭행 등 위험성이 인지될 경우에는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하고 구급대원 안전보호를 선행조치하기로 했다. 구급차 내 CCTV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웨어러블캠 부착, 휴대전화를 활용한 현장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폭행 발생 시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 소방안전본부는 2016년 8월 변호사 등으로 사법조사팀을 구성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

건 중 5건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소방기본법이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119구급대원은 소중한 우리의 가족으로 언제 어디서나 최일선 현장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빵 굽는 온정 광주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유광중)는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를 하고 직접 만든 빵을 아동 보육시설 3곳에 음료와 함께 전달했다. 이번엔 위문품을 전달한 보육시설은 노들담 형태의 집, 영신원, 신애원으로 각각 아동수가 60~80명에 이르는 보육시설이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안전 지키는 따르릉 소리 '찾아가는 자전거 학교'

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를 운영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는 자전거 전문강사 2-3인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자전거 교통법규 등 이론과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사들이 자전거, 안전 장구 등을 갖추고 현장에서 보호장구 착용법, 안전 주행 방법 등 안전하게 교육한다. 올해 교육 대상은 광주교육청의 협조로 선정된 학운초교, 우산초교, 제석초교 등 6개 초등학교 5-6학년생 1000여 명이다. 4월 학운초교, 5월 우산초교는 이미 교육을 마쳤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는 지난해까지 총 22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 진행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시 '아빠 어디가!'

참여 기업 4곳 모집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아빠의 가사 참여를 통한 공동가사 문화 정착을 위해 6월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를 운영한다. '아빠, 어디가!' 참여 대상은 가족친화 기업 및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4개 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아빠와 자녀' 둘만의 추억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광주 곳곳을 함께 탐험하고 체험하는 '아빠광주, 아톰광산, 산수푸른, 대촌일기' 등 4개 투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된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woman.gwangju.go.kr) 알리는 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ilmare19@korea.kr)로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062-613-7984로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다친 사고 5건 이상 발생 지역 '교통 시설' 개선

광주시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동일지점에서 연간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지점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경찰청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동부소방서 등 18 곳을 선정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이 지점별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수립하고, 9억3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안전차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선 도색 ▲차량감속 유도를 위한 교통신호기 ▲속도 저감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방지울타리 ▲교통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다. 앞서 시는 2018년 핵심과제로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를 선정하고 지난 1월부터 광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교통 관련 11개 기관 실무담당 19명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했다. 협업팀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시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5월 15일 기준)는 총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장마 오기 전 침수예상지역 18곳 점검

광주시가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오는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도심저지대 등 침수예상지역의 하수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다. 광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남구 무등시장, 북구 오치동 한전 인근 등 16개 지역과 임대형 민자투자 사업(BTL사업) 2개 지역 등 총 18곳이다. 특히 합동점검반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예상 지역의 빗물받이, 유입구 등 하수시설물 청소 상태와 배수흐름을 저해하는 잔재물 같은 침수피해 유발 요인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 침수 예상지역이나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지역에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한 마대, 배수 펌프 등 수방자재 준비 상태 및 침수 대비 시설물 관리사항 등도 점검해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3월 하수관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매년 국지성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노출됐던 백운광장, 무등시장, 서석교 주변에 대한 하수관로정비사업(극락천유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 침수 피해 예방효과를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단계별로 순차적인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윤 시장 "민선7기로 현안 떠넘기지 않겠다"

지하철·민간공원 등 점검

윤성현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집무실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주재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윤 시장은 "대중교통을 논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미세먼지"라며 "도시철도를 주된 대중교통수단으로 하고 시내버스를 보조수단으로 연결하면서 동시에 전기버스 도입, 친환경차 및 자전거 이용

확대, 차량의 도심진입 억제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와 관련해서는 "회색도시를 탈피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처음 해보는 일이고 국토부의 지침 등을 준수했다더라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권한을 살려 녹색도시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단계 거버넌스팀과 함께 검증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점검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윤 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민선7기로 책임과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수도서관, 매주 수요일 인문학 강연 진행

광주시립산수도서관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8년 길 위의 인문학'에 최종 선정돼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시립산수도서관에서 '책으로 생각해봄, 미술로 바라봄, 탐방으로 느껴봄'이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는 ▲주홍(샌드애니메이션 협회 이사장) ▲이승권(조선대학교 문

화학과 교수) ▲전고필(대인예술시장총감독) ▲이이남(이이남 스튜디오 대표) ▲장민한(조선대학교 미술학과 부교수) ▲황미용(아산창의사고력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해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미술로 바라보는 우리시대의 삶과 맛' 'AI 시대와 현대미술가의 창의 세계'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한다. 참가 희망자는 방문, 전화(613-7811)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citylib.gwangj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